海清堂

제 11 호
불기 2540 년
가을호

松廣寺講院
송광사강원

작금의 한국 불교

부산에 있는 어느 포교원에 들렸을 적, 그 곳에서 몇 년째 포교 활동을 하시는 선배 스님과 '작금의 한국 불교'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불교는 비록 인구 센서스 결과에서는 성장률이 타종교보다 좀 앞서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불교 전체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 같고 오히려 조금씩 쇠퇴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복 신앙을 넘어서 많은 불자들이 불교 교양대학이나 사찰의 법회, 시민 선방 등을 통하여 배우는 불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이 배우면 무엇합니까! 이 포교당 아래층에도 불교 대학이 있습니다. 자연 그곳에 출강하는 재가 법사나 신도들을 계단이나 밖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 오히려 본체만체 합니다. 스님인 제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스님은 삼보수에 들어가는 만큼 삼보에 귀의할 것을 약속한 불자라면 우선 당연히 공경하는 예를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더 잘해야 하는데, 오히려 조금 배웠다 싶으면 알음알이만 생겨 아만만 키우고, 스님 몇 분만 알았다 싶으면 이 스님은 몇 근, 저 스님은 몇 근 저울질을 하기 시작하고, 그 잘난 잣대에 조금이라도 벗어난다 싶으면 형편 없는 스님으로 몰아붙이기 일수이고, 절집 사정 좀 알았다 싶으면 제 공부 할 생각보다는 온갖 참견 다하고 싶어하는데 과연 이것이 불교 발전인지 저는 회의를 느낍니다. 마치 속옷도 안 갈아입고 겉만 뻔지르하게 화장한 여인네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스님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아마도 이는 신도들을 인도해야 하는 우리 자신들의 공부는 어떠한가에서 출발될 문제일 것입니다. 틀을 부수고 일체 세계를 열어가는 공부를 하면서도 오히려 또 다른 틀들을 만들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알음알이의 틀, 형식적 계율의 틀, 문중의 틀, 학연이라는 틀 등에 얽매여, 초발심 때의 그 당차고 활발하던 신심은 점점 사그라들고 체념하고 매너리즘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도제 양성에 있어서 현대 사회에서 다만 도태될 수 없다는 절박감으로, 불교라는 것은 학문적 대상으로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닌, 삶 자체에 녹아든 수행으로 삶과 수행이 不二로 나아가야 하는데도, 학문적인 알음알이를 쌓아올리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접근한 탓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형태로 길러진다면 불교는 삶의 온전한 그 자체가 아닌 부수품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계의 계곡 수 위에 떠가는 단풍잎은 무상화(無常花)를 피워내고, 온 산은 거승의 마지막 길 다비장의 불꽃만 같은 늦가을, 우리의 신심도 그렇게 타올라 조계를 사르고 온 세상을 사른 뒤에 텅비워 냈으면 합니다.

海淸堂

제11호
불기2540년
가을호

발행처/송광사 강원 · 發行人/智雲(講主) · 편집인/도제(입승) · 편집장/도은 · 편집/연각, 선문, 응진, 정원, 월륜 · 사진 삽화/한운 · 발행일/2540년(음)10월 1일 · 주소/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0661) 755-5300, 5302 · 인쇄/도서출판 보림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62-1 ☎ (062) 232-6702

차 례

조계의 물소리 작금의 한국 불교

포토에세이 2/법성료 ····· 한운 · 응진

기획연재 9 4/강원은 수행도량이고 학인은 구도하는 수행자다 ····· 지운

여시여시 10/계룡노스님 부도탑 제막식 ····· 편집실

지대방 이야기 12/애들아 사슴처럼 달려오라 ····· 일대

14/석류 ····· 보적

18/고소이야기 ····· 연각

해청시원 20/하늘, 구름, 마음 ····· 원각

21/산길을 오르며, 이른 새벽길을 걸으며 ····· 선문

22/오늘도 좋은 하루이기를 축원합니다 ····· 지묵

화 보 24/화보와 소식 ····· 편집실

입방소감 28/큰방에 방부를 들이며 ····· 신순

30/반가운 해후 ····· 도산

편 지 36/도반 스님에게 ····· 무념

추 모 기 32/방장스님을 기리며 ·····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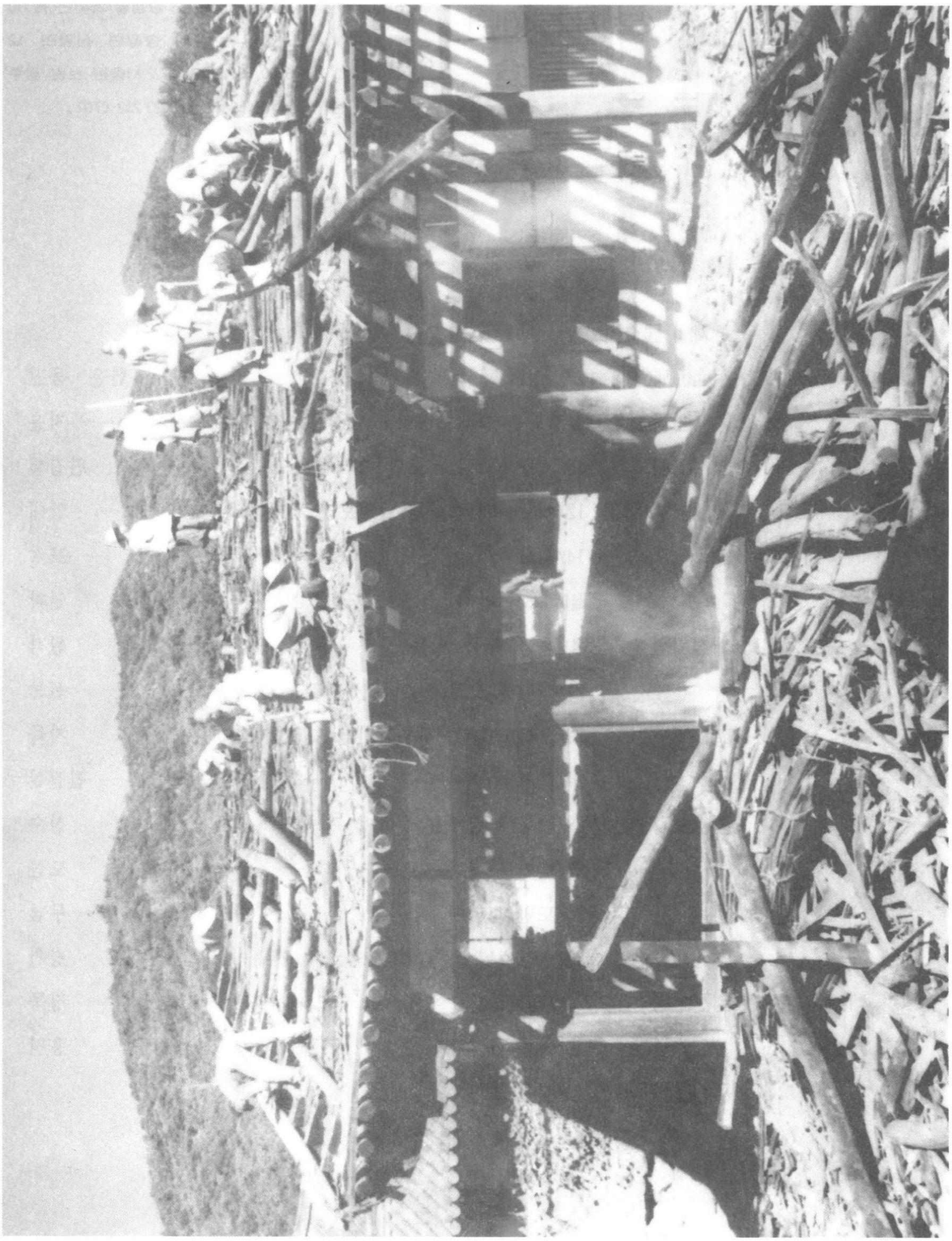
원전번역 38/華嚴釋題 중에서 ····· 정묵

40/大乘六情懺悔 ····· 응진

경전 한귀절 43/짐을 벗다

44/편집 후기

44/후원 안내



법성료

날날이 분해되는 거기엔 법성료라 불릴만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저 숱한 인연들이 모여 이루어졌을 뿐입니다(衆因緣和合生).
그러기에 실체로써 법성료인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不生)
태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멸할 수도 없습니다(不滅)
한동안 법성료라 불리웠던 나는
이제 인연이 다해 그곳에 없지만(緣離卽空)
저 뜰 앞의 꽃이며 꽃을 흔드는 바람이며,
달빛이며 그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사진 : 한운/사교 · 글 : 응진/치문

講院은 修行道場이고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다

(4) 敎法은 自心을 印可하는 道具이다

지운/강주

- 目　　次 -

1. 강원은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修行道場이다.
2. 佛法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3. 깨침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觀照에 있다.
4. 강원에서의 교법공부로 과연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가?
　1) 敎法은 因의 힘을 가지고 있다.
　　(1) 법은 깨침의 법칙이다.
　　(2) 법은 수행체계의 원리이다.
　　(3) 敎法은 깨닫게하는 因이다.
※　　(4) 敎法은 自心을 印可하는 道具이다.
　2) '공부'라는 말의 意味는?
　3) 看經하는 방법
　4) 예불, 참회, 정근, 염불 및 모든 습의는 수행이다.
5. 그러므로 講院은 修行道場이며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이다.

(4) 敎法은 自心을 印可하는 道具[1]이다.

둘째, 문자의 본질은 空하다는 절에서 "교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쳐 보는 것이 존재의 모든 본질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개인과 사회의 모든 병폐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대안일까?"라고 제시한 의문은 언어문자의 본질이 空함을 간과하여 단지 그 문자에 따라 생각하고 인식했을 때 개인과 사회의 병리현상이 생긴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병폐를 '敎法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쳐 보는 것'으로 치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낼 수 있는 것

1) 일에 쓰이는 연장. 器材. 諸具. 佛道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구.

은 어쩌면 당연하다. 빠르고 다양하게 변해가는 사회나 세계에 대한 적응내지 대응하는 방법으로써 '교법의 거울로 자신의 마음을 비춘다'고 하는 수행자체가 불완전하고 도저히 미덥지 못한지 불교계 일각에서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 그것은 교육체계나 학문의 방법을 이용하는 일이다. 이러한 방법은 자신의 마음을 비쳐보는 廻光返照의 內向的인 것이 아니고 그 반대인 밖으로 指向하는 외향적인 것인 것이다.

그러나 '교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쳐 보는 것'외에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현상에 대응하는 우선적이고 완벽한 해결방법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교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쳐 보게 하는'강원은 전통을 고수하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지고 교과목 자체가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는 구닥다리라고 하는 비판이 제방, 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참으로 강원은 단지 별볼일 없는 전근대적인 유물에 불과하단 말인가.

결국 문제의 초점은 '회광반조에 의해서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이다. 강당에서는 敎法의 인도에 따라 자기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수행을 삼고 있다. 이는 자신과 남을 구제하는 유일한 길이다. 혹자는 자기 자신이 깨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제도하느냐라고 반문하지만 보살은 남을 구제하는 것으로 자신을 비추어보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 방법은 오로지 회광반조의 수행으로써 하는 것이다. 수행방법을 개인이 주관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부처님께서 八正道, 六波羅蜜, 十波羅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행해진다.

그러나 이 모든 수행의 방법은 戒.定.慧三學의 회광반조로 요약할 수 있다. 회광반조는 거울로 자신을 비추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의 제시가 교법이고 교법차체가 이러한 거울 역할을 하고 있다. 보통 거울은 자신의 겉모습만을 비추지만 교법이라는 거울은 자신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어 보이지 않는 그 속까지 비쳐 보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自他一時成佛의 수행과 구제의 길이다.

수행은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비쳐보듯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반조하는 것이다. 반조할 때 반조의 대상이 몸과 마음의 현상이지만 특히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이다. 출가의 목적이 生死解脫인데 생사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나 '念起念滅爲之生死'라 하듯이 생각의 起滅이 삶과 죽음이기 때문에 생각의 흐름을 반조한다는 것은 출가의 최종 목적과 부합된다. 왜 생각이 生死라는 苦인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교법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반조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병리현상을 치료하는 유일한 것임을 망각하게 되고 밖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된다. 쉽게 말해서 삶과 죽음은 生老病死인데 이는 인류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다. 즉 이것이 개

개인 자신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의 병리현상 가운데 生에 해당하는 버려진 아이의 해외입양아 문제, 老에 해당하는 노부모에 대한 불효현상이나 노후에 관한 양노원문제, 病에 대한 藥과 병원시설이나 의사나 간호사의 의료행위의 윤리문제, 死에 대한 화장이나 묘지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여러 문제가 개개인 자신의 생각의 색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할 것이다. 또 개개인의 생각이 서로 비슷하다면 그룹이 현성되어 사회성을 띠는 것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의 정체는 무엇인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의 사물이 생긴다. 생각이 사물이고 사물이 생각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물론 실재의 자연계는 찰나간에 끊임없는 변모를 한다. 그러나 생각이라는 사물은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다. 생각을 의지하여 대상을 보면 보여지는 사물이 고정되어 변하지 않고 실체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비록 다른 생각으로 바뀌어도 그 바뀐 생각에 의지하여 인식해도 그 대상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생각자체는 마치 아지랑이 같고 꿈과 같고 아침이슬과 같이 실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물은 생각마다 갖고 있는 영상이다. 이 영상은 늘 고정되어 있고 실체가 있는 것같이 간주된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이 언어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찻잔과 책과 화병과 꽃이 있다면 그것을 책상이다. 찻잔이다. 책이다. 화병이다. 꽃이다라고 이름 붙이면 이 책상 등의 다섯가지의 대상이 서로 전혀 다르고 분리되어 버린다. 그러나 실재의 세계는 이와 다르다. 즉 책상과 찻잔과 책과 화병과 꽃은 전부 無常하므로 다르지 않는 하나의 無相한 모습이고 실체가 없으므로 하나의 空한 모습이고 서로 의지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는 하나의 緣起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언어로 이름붙여서 독립된 실체로 오인하게 되는 현상이 생각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 이유는 언어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눈앞에 책상이나 꽃등이 없어도 생각으로 책상과 꽃 등을 인식하여 알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생각이나 언어문자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생각은 映像으로서의 사물이라면 언어문자는 槪念이다. 그러므로 한 생각이 일어나면 한 사물이 생기고 한 생각이 사라지면 한 사물이 없어지는 것이

다. 이러한 사물이 실재하지 않는 虛像임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생각자체는 산만하고 잠시라도 머물지 못하고 사방으로 내 달리는 원숭이나 바람과 같다. 또 형체도 없이 쉽사리 변하고 감각의 대상에 동요되면서 헤매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의 속성에 속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생각이 갖고 있는 영상이 밖에 투영되어 나타난 대상에 속아 그것이 독립된 실체인 양 여기니, 이 때문에 生死에 迷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이나 사회현상으로서의 生老病死는 이러한 생각의 장난에 속아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안으로 마음을 회광반조하여 생각이 소멸하므로서 갖가지의 영상이 없어지고 그 영상에 속아 나타난 개인과 사회현상의 生死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세계는 無常, 空, 緣起의 一相으로써 無相일뿐이다. 오직 이렇게 無常, 空, 緣起의 視覺으로 개인과 사회를 보는 마음만이 존재할 뿐이다. 雪岑스님은 《大華嚴一乘法界圖註幷序》에서 "能仁海印三昧中"을

"如閻浮海中에 所有閻浮山河大地와 草木叢林을 推其實體하야 了不可得인댄 則山河色相이 乃大海之光影이라 無性可見하고 無相可取하야 惟一大海而已니 十佛內證이 只如是耳로다"

〈韓國佛敎全書 第七册 1990년 p.7-305中〉

라고 하여 山河大地의 모든 형상은 실체가 없어 마음바다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오직 마음바다뿐이라 설명하신 것에서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觀照하는 것으로 개인과 사회의 여러 병리현상을 해결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지혜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속성은 일상생활에서부터 무슨 일이나 어떠한 일이라도 자기자신은 거기에서 제외시켜 버린다. 사회의 모든 병리현상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감시한다면 잘못을 가려내어서 善하지 않는 것은 버릴수 있는 콘트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수행이다. 수행이야말로 자신과 사회를 정화하고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인간은 자기자신을 되돌아보는 힘이 약하다. 설령 되돌아본다고 하더라도 거울에 비쳐보듯이 하지 못하고 또 겉모습만 본다. 그 본질을 보지도 못한다. 만일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자신을 회광반조한다면 자신의 몸과 심리상태를 속속들이 감시하고 안다면 아마 개인이나 사회 국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윤리도덕, 경제, 종

교, 전쟁, 민족, 문화 등의 모든 문제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질을 본다면 치료되고 해결될 것이다. 반성이라는 말이 있지만 반성은 피상적이다. 하나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觀照(止觀)수행밖에 없다. 마음을 관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관조를 통해 마음바다에서 드러난 모든 존재의 형상은 그 본질이 無常, .空, 無性 등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알면 우주를 안다. 우주의 모형은 마음의 모형이라는 어느 과학자의 말이 생각난다.

이제 문제의 해결방법으로써 회광반조외에 다른 방법이 과연 있을까 도리어 반문하고 싶다.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지말적이지 근본적이지는 못하다고 본다.

6

그 방법 가운데 학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문은 생각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시스탬 자체가 없다. 그렇다면 佛法이 자신의 생각을 비쳐보는 거울이라면 불법을 학문의 범주에 집어넣어서 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학문은 어디까지나 문헌이나 다른 이론을 인용하여 자신의 논조를 피력하는 것이지 자신의 마음을 마치 실재의 사물보듯이 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학문하는 사람은 자기자신은 그 학문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객관적 사실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신의 생사문제는 거론시킬 수 없다.

그러나 교법의 거울로 자신의 내면을 비쳐보는 것은 곧 자신의 생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밖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의 정체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다. 이 때 거울의 역할은 바로 법을 담고 있는 언어문자이다. 그러나 같은 언어문자이지만 담겨있는 내용이 법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역할이 달라진다. 즉 담겨있는 것이 법이 아니고 사상이나 철학같은 학문이라면 되비쳐보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학문은 논리와 추리하는 분별의 세계이기에 언어문자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와 반대로 언어문자가 담고 있는 법은 言語道斷 心行處滅의 영역이다. 심지어 문자도 그 性이 空함을 말한다. 때문에 거울이 像을 비추는 것과 같이, 비추는 그 인식은 아직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名言을 수반하지 않듯이 교법도 단지 보여줄 뿐이다.

또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비추기만 하지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문은 분별이므로 거울이 아니다. 즉 생각으로 학문하기 때문에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즉 생각이 생각을 볼수 없다는 데에 있다. 칼날이 자신을 벨 수 없듯이 생각은 자신을 볼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교법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 견해(생각)가 아니다. 만일 사상이나 어떤 견해라면 학문은 언어문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학문과 상응하겠으나 無常, 空 등의 진리(法)는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문

자를 초월해 있다. 그러므로 법은 학문 속에 담을 수 없다. 애초부터 담겨지지 않는다. 법과 상응할 수 있는 것은 학문이 아니다. 상응은 廻光返照의 수행뿐이다. 그러므로 법을 학문화하여 보는 것은 배나 길안내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 밖에 안된다. 오로지 觀照에 의해서만이 배나 길잡이로써 역할을 다하여 내면의 마음으로 引導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법의 언어도단과 관조의 除分別만이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金剛經≫ '正信希有分'에 "여래는 항상 설한다. 너희 비구들아 나의 설법은 강을 건너는 뗏목에 비유된다"

"如來常說 汝等比丘 知我說法 如筏喩者 法尙應捨 何況非法"

라고 설하신 것이다. 깨침에 있어서 학문적 방법은 지말적이다. 비실천적이고 언어문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어디까지나 학문은 실험 연구한 결과 실증된 것만이 진리로 인정한다. 그러한 진리를 페러다임이라고 한다. 이 페러다임을 근거로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거나 정립하는 것이 학문이다.

그러나 페러다임도 시대에 따라 자주 바뀐다. 이는 可變性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학문이다. 대학의 교재가 몇년 또는 몇달만에 자주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佛法은 250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 설령 언어문자가 바뀌더라도 그 내용은 한결같다. 그것은 不變性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문과 같이 늘 연구 검토하고 새로운 페러다임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佛法은 모두 설해져 있다. 오로지 체득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교법은 체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흔히 법을 담고 있는 언어문자를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치 깨침을 가로막고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원흉으로 몰아부친다. 물론 법을 설한 언어문자가 아무리 생사의 흐름을 逆流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일 이 법을 학문화하여 이해를 도모한다면 과연 얼마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과연 우리들의 생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만일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얼마든지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문은 단지 지식의 세계 즉 언어의 세계에서나 가능하지 언어 이전의 세계 즉 존재자체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오로지 분별의 힘을 가진 언어 즉 생각이전의 무분별의 지혜가 아니면 안된다. 그러므로 법은 우리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이라고 한 것이고 이 법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지혜이고 이 지혜의 발현은 교법을 통하여 일어나는 회광반조하는 마음, 즉 觀智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교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쳐 보는 것이 존재의 모든 본질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개인과 사회의 모든 병폐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대안일까?"라고 提示한 의문은 어느정도 풀렸으리라 본다.

〈다음호에 계속〉

계룡노스님 부도탑 제막식

지난 10월 27일 송광사 부도전에서는 1년전 열반하신 계룡노스님의 부도 제막식이 사중의 전 대중스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단촐하게 거행되었습니다.

반야심경 봉송에 이어 주지스님의 간략한 경과소개와 동당스님의 계룡노스님의 행장소개, 계룡노스님의 상좌이신 현 송광사 교무소임을 맡고 있는 대원스님의 사중스님들과 강원스님들의 배려에 대한 인사말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룡노스님의 부도탑을 마지막으로 평생을 돌과 함께 그리고 송광사와 함께 하셨던 정처사님과의 아쉬운 헤어짐도 있었습니다.

☞11쪽은 본지 4호안에 들어 있는 노스님과의 취재 내용중에서 일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송광사 도량 수호신, 계룡 노스님

대담 : 보원/사집
사진 : 한운/치문

보원 : 불과 두 해 전에 노스님을 시봉했는데, 이제 강원 학인이 되서 강원 대선배이신 스님과 마주 앉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몇 살에 왜 출가하시게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지요.

노스님 : 열다섯에 정월 보름날 송광사에 왔어. 고향이 벌교, 저그 석굴재 넘어가서 추동여. 내가 독자였는디 우리 모친이 중되믄 오래산다고 했다고 당숙 따라 보냈어. 당숙이 조계송이라고 송광사 스님였응께. 당숙이 우리스님 향운스님한티 말해줘서 중이 됐제.

보원 : 바로 행자 생활을 하셨나요?

노스님 : 그래 은사스님 시봉하믄서 행자를 한 일 년 넘게 했제.

보원 : 그리고 바로 수계 하셨나요.

노스님 : 아니, 수계는 바로 안하고, 삼 년후 하제. 그때는 한 삼년을 시봉하믄서 은사스님한티 송주를 베워. 송주가 순 한문여. 그래 어려워.

보원 : 스님, 송주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노스님 : 염불말여. 천수경부터 시식까지 다 배우는디 아침에 갈치고 저녁에 점검혀. 그래 못하믄 목탁채로 맞고 그랬어.

보원 : 강원에는 몇 살에 가셨고, 그때 강원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스님 : 엿여섯에 갔제. 그때 송광사 강원 학인 칠십 명이 넘었네. 그때는 강원 이력이 십 년였어 졸업할라믄 십년 걸렸제. 강사는 강주 스님 한 분 있고 대교반만 갈쳐. 나머지 치문부터 사교까진 대교반이 갈쳤구만. 대교반이 중강을 하니께 말도 못하게 무서웠어. 본과목 말고는 왜정강사가 있어서 일본말하고 산수를 갈쳤어. 습자(붓글씨), 작문도 배웠제.

보원 : 강의는 어떻게 받았고 시험같은 것도 있었나요?

노스님 : 암 시험보제. 잘못치믄 장군죽비로 막 패. 그날 배운 걸 못 외도 맞고 그랬어. 그때는 이력을 다 외웠네. 강원생활이 참 되고만, 참 바쁘고, 은사스님 시봉할랴 채전 가굴랴 영 바뻐. 스님 아래로 텃밭이 있어서 고추, 배추, 무 다 가꿔 먹었어.

보원 : 그때 강원은 어느 자리에 있었나요?

노스님 : 지금 승보전 자리에 크게 있었네. 지금맹크로 불교전문 강원이라고 크게 써 붙여 놨제. 그때 강주 스님이 금명보전 스님이라고 대강백였거던. 조계고승전을 그이가 썼제. 그 전에는 호붕에서 강백이 했는디. 이름이 나서 사방에서 다 와. 서울서도 많이 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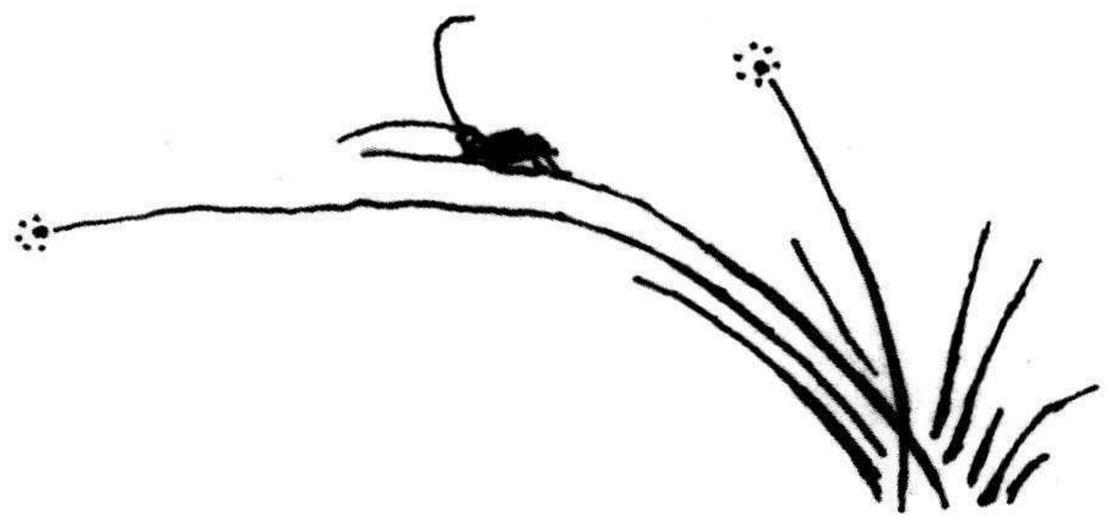
보원 : 요즘은 선암사 강원하고 일 년에 한두번 축구를 하는데, 그때도 그랬나요.

노스님 : 암, 그땐 정구를 많이 했제. 굴목재를 넘어다니믄서 일년에 서너 번씩 했제. 그때 운동장은 지금 화엄전 옆에 대밭이었는디 거그에 정구장이 있었고, 축구·야구 다 했제.

보원 : 강원 졸업은 시험을 쳐서 시켰나요?

노스님 : 시험봐가지고 시켰제. 점수 모질하믄 졸업장 안줬제. 지금 꼭 핵교 졸업장맹크로 졸업장이 나왔어. 사중에 2원50전인가를 내. 그라믄 한식날 큰 종우 우에 졸업자 아무스님, 은사스님 아무개 스님 크게 이름을 써서 붙여.

얘들아 사슴처럼 달려오라



일대/사집

올 여름 하안거에는 나를 무척이나 성숙시켰던 몇 가지 일이 있다. 일상의 번뇌 한웅큼이 가득 한쪽을 자리잡고 짓누르며 답답함의 열병 속에서 해제 한달 여를 앞두고 있을 즈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맡고 있던 스님들이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쉬게 되었다. 평소에 관심이 조금은 있었으나, 쉽사리 뛰어들 엄두를 못 내고 있던 차였다. 주위 도반스님들의 권유와 한번 해보아야겠다는 투지로 팔을 걷어 붙였다.

대부분 계획이 이미 잡혀 있었고 또한 지금까지와 큰 변동 없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조금은 당황되고 힘들었다.

법회에 참석하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순천 대승사, 광주 원각사 어린이들까지 행사에 참여 하였다. 요리조리 궁리를 해 가며 계획을 알차게 짜보려고 했으나 별로 뾰족한 해답도 얻지 못하고 열병만을 앓았다. 思보다는 行이라. 발로 뛰는 사이에 일은 의외로 차근차근 잘 풀려 나갔다. 송광사에서 스님 세분과 지도선생님 세분, 원각사에서 선생님 두분, 대승사에서 선생님 네 분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의 상충되는 점을 바로 잡아 나갔다. 모두들 신심이 충만한 가운데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일을 처리해 갔고, 어려운 일은 솔선 수범하여 앞장서서 해 나가다 보니 어렵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의외로 잘 풀렸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자신을 탁마할 수 있었다.

성암 청소년 수련원에서 2박 3일간 행사를 진행했다. 아이들은 통제를 하지 않으면 천방지축 막무가내로 장난을 치거나 말썽을 피웠다. 처음 하루는 무조건 통제하려고만 하다 보니

목이 다 쉬었다. 둘째 날부턴 아이들 다루는 요령이 생겨 일정을 쉽게 진행할 수 있었다.

저녁에는 캠프파이어를 진행했는데 레크레이션 지도자의 구령에 모두들 신명이 났는지 즐거워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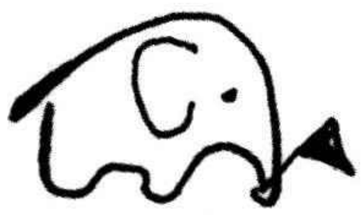
그 중에서도 '쿵따리 샤바라'란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던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또한 자기 반을 상징하는 모습을 몸으로 나타내 보라고 하는 구령이 떨어지자 온몸을 날려 땅바닥에 엎드리기도 하고, 혹은 목마를 태우기도 하고 혹은 손을 맞잡기도 하면서 갖가지 모양을 연출해 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천진난만한 그 모습은 바로 천진불이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촛불의식으로 발원을 했다. 모두들 눈물을 글썽이며 지나간 시간들을 아쉬워했다.

2박3일간의 일이 꼭 이삼십년 지난 것처럼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도 컸다. 이 행사를 치른 뒤 한껏 성숙된 자신의 모습을 보아서 좋았고 무엇보다도 아무 사고 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어서 좋았다.

행사에 참여했던 아이들에게 항상 부처님 가피력이 함께 하길 발원해 본다.

또한 자기 반을 상징하는 모습을 몸으로 나타내 보라고 하는 구령이 떨어지자 온몸을 날려 땅바닥에 엎드리기도 하고, 혹은 목마를 태우기도 하고 혹은 손을 맞잡기도 하면서 갖가지 모양을 연출해 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석 류

보적/대교

세친의 구사론에 '일수사견(一水四見)'이라는 비유가 있다. 그것은 존재 자체의 양상에 따라 하나의 물을 네 가지로 본다는 마음의 능동성을 비유한 말이다. 인간은 물을 마시거나 뜰에 뿌리는 것으로 보고, 물고기는 사는 집으로 보고, 천인은 유리로 보고, 지옥 중생은 농혈로 본다는 비유인데 요즘처럼 청량한 가을…. 햇빛이 물색에 반사되고 댓잎에 반사된 푸르른 빛이 이제 막 굴러 떨어진 낙엽의 몸을 겨누고, 온 대지가 앞 다투어 고운 빛깔을 차지하기 위해 바람에 몸을 떠는 모습을 보며 나에게 있어 가을은 빛들이 춤추는 계절, 빛의 계절이 아닐까 하는 망상을 피워 본다. 나무의 산화된 영혼들이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 몸을 움찔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또, 그 가운데 더욱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변화의 자각을 두려워하고 시기하는 시커멓게 그을어진 존재의 흐느낌이 자지러진다. 모든 것이 순간순간 변해 가는 무상의 진리 앞에 지금도 바람은 옷색깔을 달리해 어두워진 비전의 뜰 안에 서늘한 기운을 드리운다.

강원에서의 삶도 무상이라는 커다란 파도에 휩쓸려 흔적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지금 우리의 불교 현실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정리해 본다. 처음 발심 출가하여 출가인이 사는 삶이라 하는 것은 고통의 초극이라는 대명제를 안고 시작하는 풋풋한 감동의 삶인지라 비세속이라는 파아란 빛들에 둘러싸여 시간도 잊고 공간도 잊는다. 그저 고통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추구와 탐구만이 생의 버팀목이 될 뿐. 하지만, 이러한 삶도 이내 일상의 타성이라

는 오랏줄에 묶이어 무의식적인 소외된 삶속에서 또 다른 방황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승가의 현실인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진정한 가치추구인 출가의 생활이 또 하나의 세속적 욕구의 해소라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무상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부족해서일 것이다. 무상에 대한 명확한 각성이 보리심이요, 그 보리심이 바로 회광반조(廻光返照)인 것이며, 회광반조를 통해 우리는 존재의 연기하는 흐름의 실체를 똑바로 파악을 한다. 따라서, 수행자의 삶이라는 것은 생각 생각 보리심을 내는 것이고 그 보리심을 통해 모든 존재를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수행자가 보리심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정한 수행자라 할 수 있겠는가?

요즘 새로이 승려가 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의 출가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와 세계의 공동의 가치 모색을 위한 불교가 되어야 한다는 진취적인 측면일 것이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의 양적 확대를 통하여 전통적인 수행체계와 실질적인 수행의 체험을 등한시한다는데 있을 것이다. 불교의 모든 수행의 핵심은 일념회광(一念廻光)이다. 일상의 모든 행위가 반조(返照)를 통하여 힘찬 생명력으로 승화되지 아니하면서 단순히 지적인 이해만으로 불교를 알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기 모순의 과정을 동반할 것이고, 본연자성(本然自性)에 대한 신해(信解)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수행자의 고귀함과 당당함도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풍토 속에서 돈에 아부하고 권력과 지위에 아부하고 명예 앞에 무릎을 꿇어 버리는 오늘날의 부끄러운 불교의 모

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또, 지나치게 마음, 성불, 부처만을 강조하는 선불교적인 풍토 속에서 승려들이 계율과 인과를 부정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의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는데 제대로 접목시키지 못하는 것도 우리불교가 시급히 돌아보아야 할 문제점이다. 시대의 아픔을 읽어 내어 적절한 치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배부름과 따스함만을 찾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49년 동안 맨발로 길에서 노숙하시면서 중생들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셨던 우리 부처님의 뜻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전통 강원의 입장을 고수하는 쪽에서는 단순히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대한 자구책이 아닌 전통 강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수행체계의 확립과 실제적인 실천을 통해서 민중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편과 안목을 갖추는데 능동성을 보여야 할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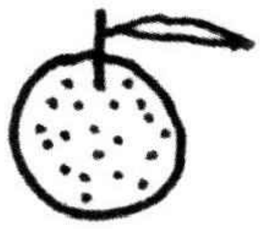
진실된 수행에 대한 바른 견해와 실천이 부족한 시대이다. 의식 있는 자들에 의해 내면의 혁명을 통한 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시대이다. 승려라고 하는 두터운 아집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는 시대이다. 우리 불교의 장단점에 대한 철저한 자각 없이 기독교적인 교화 방식만을 답습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단순히 전통적인 불교의 모습만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다. 요즘 우리 강원도 전통적인 수행체계와 시대적인 요구에 따른 변화의 길목에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전통 강원의 입장을 고수하는 쪽에서는 단순히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대한 자구책이 아닌 전통 강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수행체계의 확립과 실제적인 실천을 통해서 민중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편과 안목을 갖추는데 능동성을 보여야 할 것이며, 학문적인 연구를 위주로 불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언어적이고 관념적인 불교가 아닌 생동감 있게 삶의 모습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불교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개별적이고 실체

적인 사고가 아닌 온 우주의 유기체적 구조를 이해하게 해주는 통합적이고 연계적인 시각에서의 통찰인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다르마의 내용인 만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극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연기법적인 상호관련성과 총체성에 대한 접근과 이해만이 개인적인 삶의 고통과 더불어 온 인류가 안고 있는 모순과 부조화를 해결할 수 있다. 연기법에 대한 이해는 보리심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보리심만이 우리를 어둡고 긴 혼침과 산란의 터널 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이런 구절이 있다.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큰 자비심을 일으킨다는 것이니 널리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까닭인 것이다."

이 말을 달리하면 보리심과 자비심은 한 동전의 양면처럼 둘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심리적 고통의 해결만이 목표가 아닌 모두를 위한 수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치열한 구도심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에 우리 불교도 이제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불교 현실을 왜곡됨이 없이 직시하고 일체중생 모두를 구제하겠다는 원력과 서원을 일으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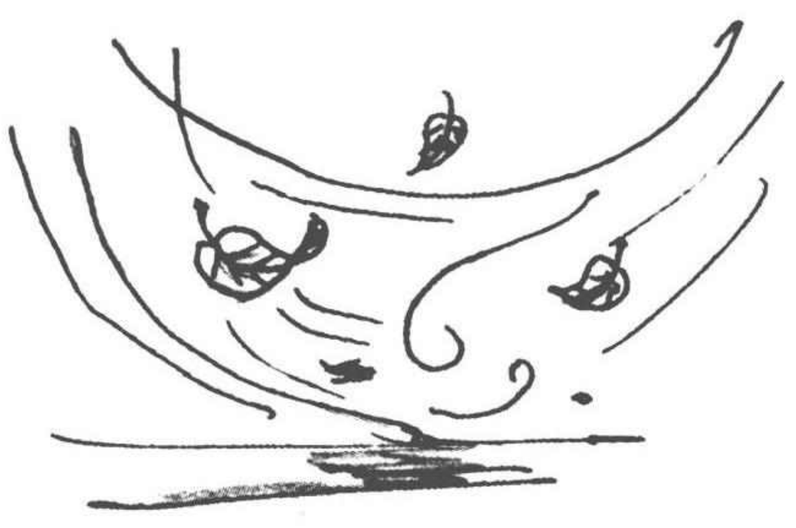


가을이 깊어지는 만큼 하늘빛은 더욱 파래진다. 여름 내내 책상 앞에서 바알간 시선으로 나를 지켜 봐주던 석류꽃은 눈물을 뚝뚝 흘려 존재의 허무함에 고개를 떨구고 다시 그 자리엔 생의 환희를 가득 머금은 바알간 기쁨의 열매가 달려 있다. 무엇에 대한 열정이 저토록 붉게 삶을 영글게 했을까?

보현보살의 서원을 생각해 본다.

고소이야기

연각/사집



사시예불을 마치고 큰방에 들어서면, 공양 시간.

오늘은 오랜만에 눈에 띄는 반찬이 있다. 이 반찬을 대하고 보면 언제나 입가에 미소가 맴돈다.

출가하겠다고 절에 와서 처음 접해 보는 공양 시간이었을 게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부자연스러운 가운데 식기에 밥을 담은 후 반찬을 골고루 조금씩 담았다. 안쪽에 마련된 지정석에 앉아 첫숟갈을 뜨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생전 처음인 이 맛.

온통 속이 편치 않을 정도의 강한 맛과 냄새.

순간 공양을 마저 먹을 생각을 하니 아득하기만 했다. 절 음식이 다 이런 것인가. 행자들은 설거지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식판을 쓰지 않고 바루처럼 큰그릇에 밥과 찬을 함께 넣어 비벼 먹기 때문에 어떤 찬의 맛인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묵언기간이었기에 물어볼 수도 없고, 따라서 다음 공양 시간부터는 찬을 넣을 때마다 긴장했었던 기억이 있다. 후에 행자님들에게 물어 안 일이지만 그 주인공은 '고소'였다. 뿐만 아니라 고소를 잘 먹어야 중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어른 스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식물을 스님들은 그렇게 잘 드실까. 의아해 하면서도 스님들이 좋아하는 찬이라기에 억지로라도 먹어 볼 수밖에. 매번 조금씩 용기를 내어 먹었다.

하루는 상행자 둘이서 광원암에 울력을 다녀왔다. 그런데 행자님들이 공양간에 돌아오는 순간 그 독특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 중 한 행자님은 처음 입산해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해서인지, 고소라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고소 밭에 들어가서 직접 고소를 캐어 들고

큰절까지 내려왔으니 그 표정이 말이 아니었다.

비누로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등 애써 봤지만 고소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어쩌다 고소가 찬으로 나올 때면 고개를 설래설래 흔드는 그 행자님을 보고 혼자 미소를 짓곤 했다.

그 후 계를 받고 스님이 되어 광원암에 같이 올라갔을 때에도 고소를 내놓으니 그 스님은 다른 핑계를 대고 밖에서 서성거릴 정도였다.

그렇지만 처음에 그렇게 싫었던 고소의 향과 맛이 몇 번 참고 먹다 보니 자연히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오히려 그 독특한 맛과 향이 그 무엇하고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물론 그렇게 고소를 피해 다니던 도반도 지금은 고소를 잘 먹는다.

어쨌든 출가한 이후 입맛과 식습관이 바뀐 것은 확실하다. 밖에서 아무렇지도 않았던 양파, 파, 마늘은 냄새만 맡아도 두통을 일으킬 정도로 예민해졌고, 입산 당시 그렇게 싫었던 고소는 이제는 마냥 좋으니 말이다.

그러고 보면 역시 환경은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새겨 보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살기 마련이어서 내가 익숙한 것에는 무감각해지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예민해지게 된다.

부처님법을 만나 절에 들어와 알게 모르게 익숙해진 환경들. 부처님 말씀도 읽고 듣는데 익숙해졌고, 대중스님들과 함께 살고 있는 생활 또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다 보니, 처음 느꼈던 그 환희심이나 성스러움도 엷어져가는 듯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중생심으로 절 집일을 분별하고, 부처님 법답지 않은 일에 예민했던 초발심이 어느덧 무감각해지다 못해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소에 익숙해진 내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깨어있으라 하셨다.

아무리 좋은 부처님 가르침이라도 깨어 있지 못하면 느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법.

오늘은 고소 맛과 향을 음미하면서 현재의 나자신이 처해있는 환경과 그 속에 있는 나자신을 점검해 보아야겠다.

고소를 잘 먹으면 중생활 잘한다 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인지 알아도 봐야 되겠고….

그 중 한 행자님은 처음 입산해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해서인지, 고소라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고소밭에 들어가서 직접 고소를 캐어 들고 큰절까지 내려왔으니 그 표정이 말이 아니었다.

하늘, 구름, 마음

원각/치문

누워서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은 푸른 빛이나
푸르다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뭐라 표현할 수도 없네.
그냥 하늘빛이라고 할 수밖에…

저기 떠가는 한조각 흰구름
나의 마음을 휘저어 놓고 가는구나.

저리도 맑은 하늘아래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영롱하게 내리는 햇살 속에서
소리내여 목놓아 울고 싶어라.

산길을 오르며

선문/치문

산길을 가며 바다빛 하늘은 높고,
바라다 보이는 저 단풍 빛깔들.
어느새 마음은 산속 도인이 된 듯,
아무 말없이 그저 바라보며,
입가에는 알지 못하는 미소만 가득.
불어오는 바람에 두루막 자락 날리며,
내가 왔던 길을 생각하며 후회없을,
다시 마음속 깊이 다짐해 본다.

이른 새벽길을 걸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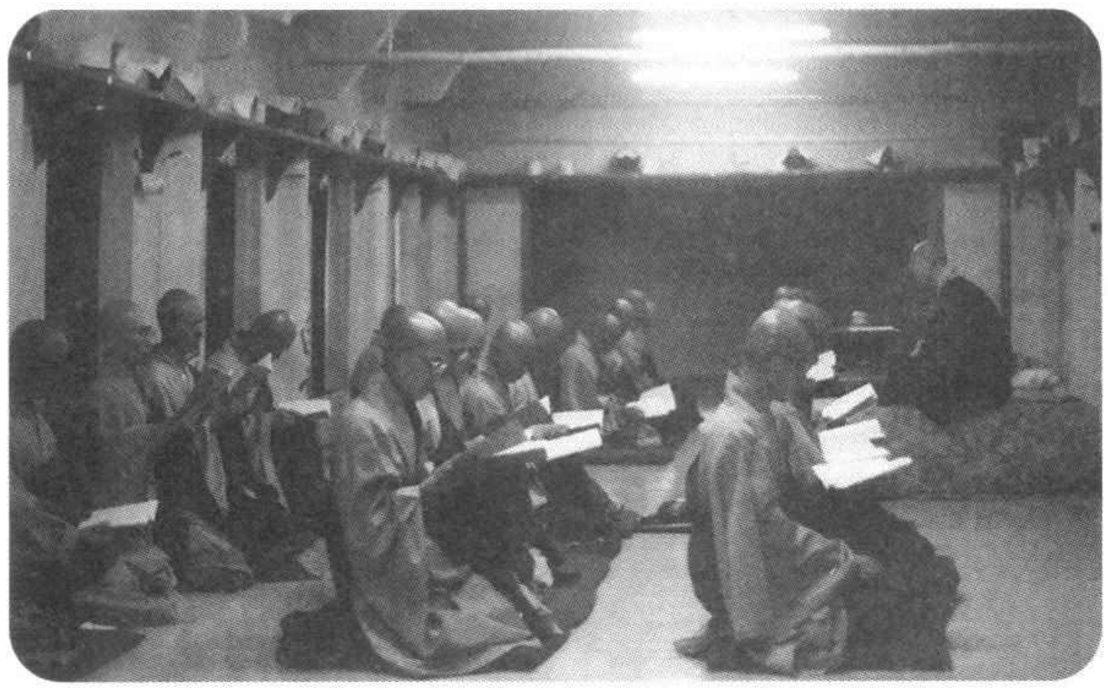
고요히 지나가는 산 안개속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느껴지는 찬기운.
저 산 뒤 붉은 녀석이 올라오면…
"얼마나 걸어 설까?"하며
망상속으로 곤두박질하는 나!
한 번 더 산위를 보았지만,
그 녀석은 아직 오르지 않았다.

오늘도 좋은 하루이기를 축원(祝願)합니다

지묵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올 때는 흰구름 더불어 왔고,
갈 때는 밝은달 따라서 가니
오고가는 한물건은 과연 무엇입니까?
태어남은 한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은 한조각 구름이 사라짐이라
구름은 본래 실체(實體)가 없는 것
나고 죽음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니
인연(因緣)따라 왔다가 가는 것일 뿐
생사(生死)가 본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하여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
자기를 살펴 보며는,
우리는 모두 지혜(智慧)와 덕성(德性)이 갖추어진 부처입니다.

우주의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모두 자기의 참 모습입니다.
마음을 텅 비우고 헛된 꿈을 깨고 보며는,
모든 진리는 자기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구름 걷히면 앞산이 드러나듯,
무명번뇌(無明煩惱)가 사라지면
그대로 우리의 천진면목(天眞面目)을 보게 됩니다.
본래 깨끗하고, 고요하고, 영원하고,
구족한 마음의 참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모든 미혹(迷惑)과 망념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태평가를 부르며,
순수한 참 나와 하나가 되고,
본래 신성한 나의 참 모습속에서
영광(榮光)을 나투고,
영원히 빛나는 거룩한 부처님을 친견(親見)합시다.
이러한 진리속에 살고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幸福)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이루기를 축원(祝願)합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사미계 포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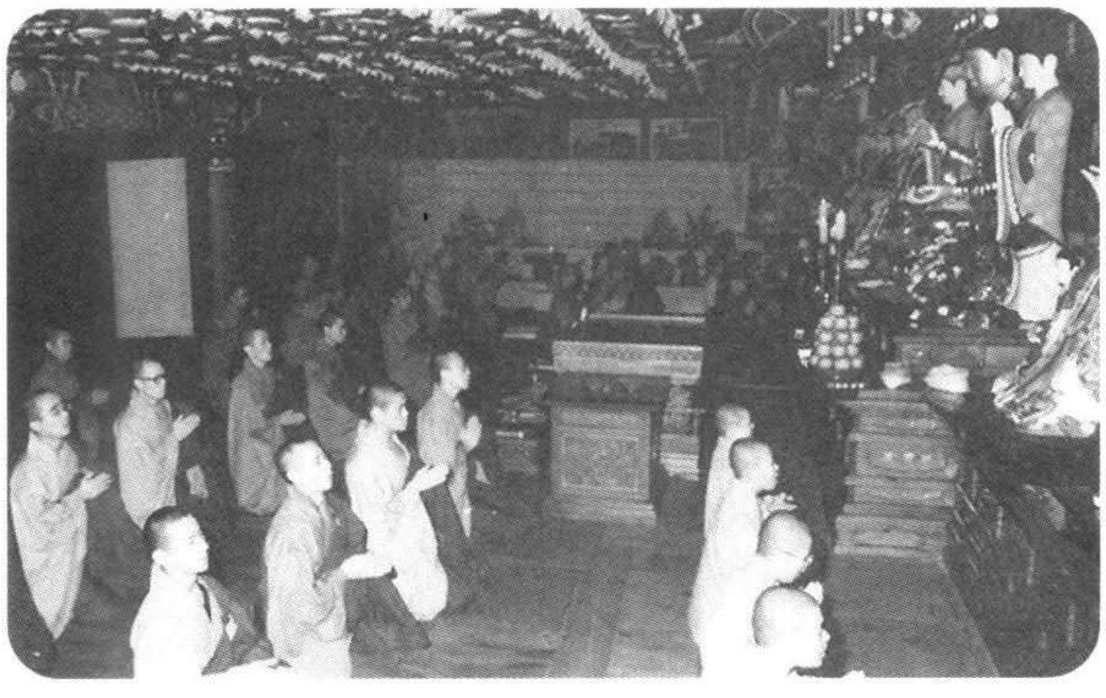
7월 29일 : 저녁 예불을 마치고 큰 방에서 사미계 포살이 있었다.

학술회 참가

7월 31일 :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도선국사와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국제 학술세미나가 열려 강원대중이 참석 했다.

전 방장스님 49제(막제)

8월 10일 : 대웅전에서 전 방장이셨던 혜광승찬스님의 막제가 있었다. 이날은 외부에서 오신 스님들과 신도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백중기도

8월 21일~28일 ; 우안분절 및 하안거 해제를 맞아 지장전에서 천야기도를 올렸습니다.

취봉스님 제

8월 12일 : 대웅전 마지를 올린 후 지장전에서 사중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당스님을 법주로 모시고 제를 지냈다.

버섯(나무세우기) 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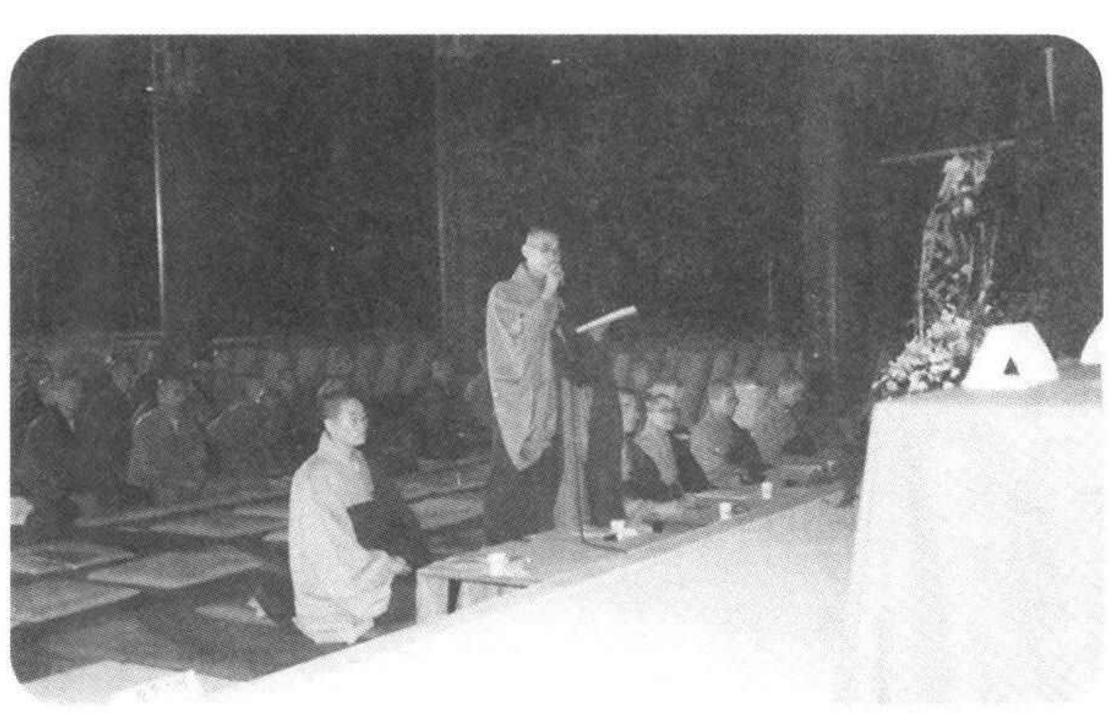
8월 16일 : 지난 산철에 버섯종균을 넣은 나무를 사이사이에 천사줄을 쳐서 나무 세우기 울력을 했다.

수산스님 영결식

10월 5일 : 대구 무학산 연북선원 수산 큰스님 영결식에 사중스님 대부분이 참석하였다.

효봉스님 제

10월 13일 : 대웅전 마지를 올리고 효봉영각에서 사부대중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엄숙히 치러졌다.



정기소풍

*10*월 *14*일 : 남해 금산 보리암과 호구산 용문사로 소풍을 다녀왔다.

법성료해체 울력

*10*월 *16*일~*17*일 : 아침부터 지붕에 있는 기와을 내리면서 법성료 해체 울력은 시작되었다. 이 자리엔 계속해서 늘어나는 학인들을 수용할만한 처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학술회의

*10*월 *19*일 : '불교와 도시'라는 제목으로 서울 법련사에서 주최한 제9차 학술회의에 강원대중이 참석하였다.

백양사 방장 추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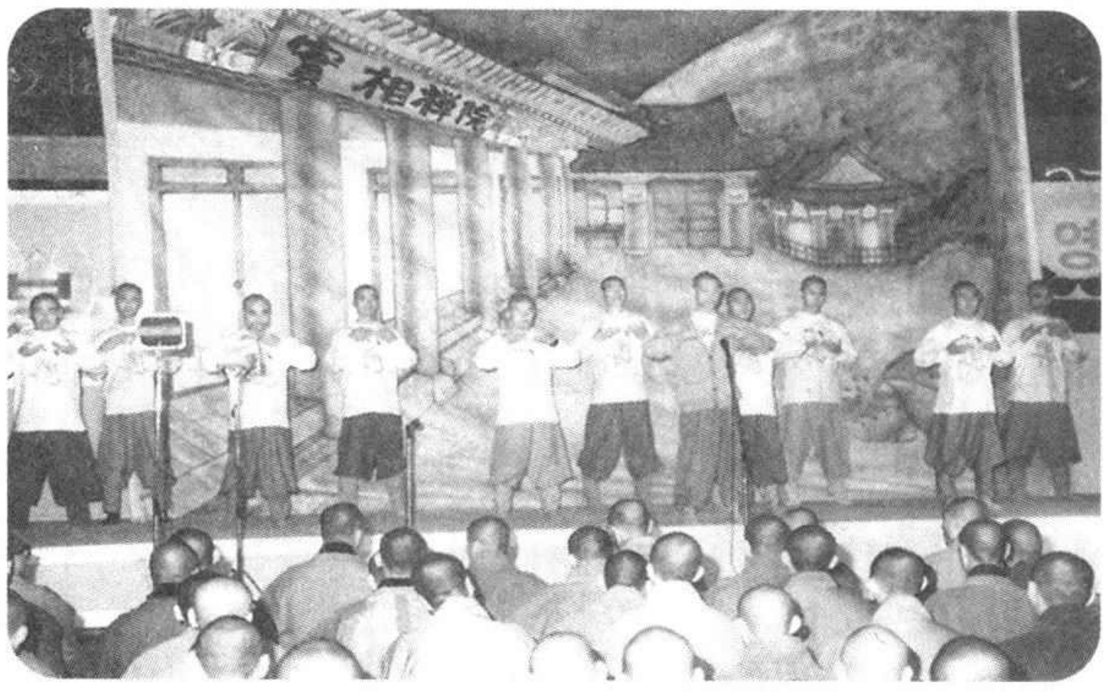
*10*월 *25*일 :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있었던 서옹 큰스님의 방장 추대식에 *40*여명의 사중스님들이 참석했다. 이날 추대식에는 불교계 원로 스님들과 각계 인사들도 자리을 함께 했다.

계룡스님 기제

10월27일: 지장전에서 제가 끝난 후 바로 비전에서 스님의 부도 제막식을 가졌다.

학인대회

11월2일-3일: 통도사에서 있었던 2일간의 전국 학인 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세미나등 각종행사가 추가되어 더욱 뜻깊은 학인의 장이 되었다.



큰방에 방부를 들이며

—출가의 본분을 잊지 말라는 은사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신순/치문

번뇌망상으로 습이된 육신을 오늘도 지대방에서 그대로 따른다. 큰방에 방부를 들이기전 대기하는 동안 무엇하나 하지 않고 지내다보니 그저 시주물만 축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초발심할 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흐트러져 가는 내 자신을 바로잡고 수행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지 않나를 생각하며 평소하던대로 화두를 챙겨본다. 그러나 강원에서 앞으로 생활할 것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으로 화두는 어느새 금방 사라져 버렸다.

망상만 잔득 피우다가 큰방에 방부를 드리고 나니 모든게 낯설고 익숙지가 않다. 절에서 오랫동안 생활은 하였으나 큰절에서 대중 생활하기는 처음이라 앞으로 잘 할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떠날 때 은사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승가에서는 화합이 우선이니만큼 도반 스님들과 잘 지내고 강원생활에 잘 적응하여 출가의 근본을 잊지말라고 하셨다. 힘들 때마다 처음 발심할 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내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은 도둑을 지키듯 끝없이 끝없이 살펴보고 탐심과 진심이 일어날 때는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서 봄눈 녹이듯 하고 항상 하심하는 자세로 생활하라고 말씀하셨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벌써 보름이 지나가고 나에게도 소임이 주어졌다. 소임은 큰 방에서 대중스님들이 공양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과 주무시는데 이상이 없도록 온도를 조절하는 화대이다.

한두 분의 스님이 감기라도 걸려서 콜록거리는 모습을 볼라치면 무척 송구스럽기만 하다.

며칠 전에 비가 내렸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가을은 더욱 깊어지겠지. 대웅보전 뒤 담을 장식하고 있는 담쟁이 넝쿨은 벌써 옷을 벗은지 오래이고 주변의 백일홍 이파리, 감 잎사귀, 그리고 이름모를 나무들도 옷을 벗기 시작했다.

관음전 앞마당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며 금잔화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기에는 벌써 때가 지났음인가, 변해가는 자연의 모습을 보며 내 모습도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구나를 상기하며 부처님 공덕이나 까먹는 제자 아니기를 빌어본다.

관음전 앞마당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며 금잔화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기에는 벌써 때가 지났음인가, 변해가는 자연의 모습을 보며 내 모습도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구나를 상기하며 부처님 공덕이나 까먹는 제자 아니기를 빌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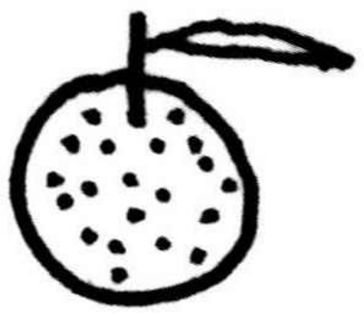
내가 행자시절에 처음 배웠던 보조스님이 쓰신 계초심학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所謂 蛇飮水하면 成毒하고 牛飮水하면 成乳"한다는 구절이다.

똑같은 물을 마셔가지고도 어떤 이는 그물을 우유로 만들어 주위에 자비를 베풀고 어떤 이는 독을 만들어 해를 입히고 있다.

나는 어느 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며 ….

행주좌와 어묵동정. 마하반야바라밀.



반가운 해후

도산/치문

모든 해후는 이처럼 반가운 것인가? 송광사와의 2년 반만의 해후는 타향살이에 지쳐 고향에 돌아온 이의 마음처럼 편안하다. 저녁예불 시간에 보조국사 사리탑에서 바라본 조계산 전경은 "아! 2년 반만에 다시 보는구나!" 하는 감회를 일으키게 했다. 제대 후 은사스님을 뵙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바로 송광사로 출발했다. 하루라도 빨리 방부 드리고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었다. 복학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객실에서 대기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새로 시작할 생활에서의 동떨어짐은 왠지 모르는 어색함을 안겨준다. 그런데 그런 어색함을 도반스님들의 고마운 방문이 잊게 해줬다.

이런 저런 일들을 겪은 객실에서의 생활은 앞으로 강당생활 적응에 큰 도움을 줄 것 같다. 이젠 사물함도 정해지고, 경상 놓을 자리와 잠 자리도 정해졌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소임도 맡았다. 강당 생활이 몸에 베지 않은 탓에 벌써 작은 지적도 받았지만 내 할바에

나의 아집과 독선과 편견과 이기등 울퉁불퉁한 모남을 바로 대중생활을 통하여 갈고 닦아 고르게 만드는 것이리라. 그래서 평생 수행자로서 살아가는데 흐트러짐이 없도록 기초를 다져주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충실하다 보면 스님들과 더불어 함께 잘 살수 있으리란 믿음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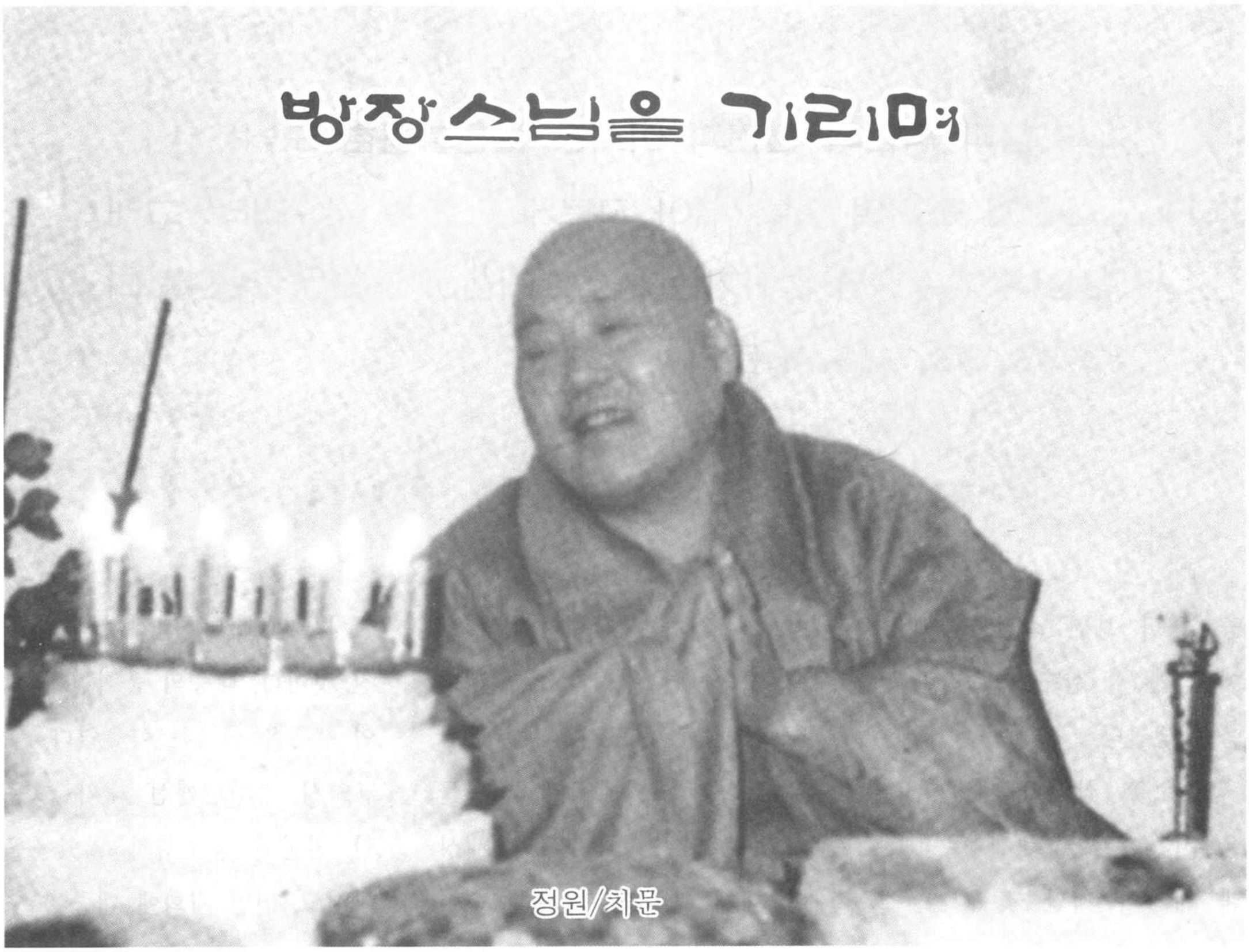
입방 후 삼일이 지났다. 짧은 시간이지만, 내겐 무척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다. 그동안 "내가 최고" 라는 아만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는 어리석은 사견에 빠져 스스로 벽을 쌓아 거기에 머리를 찧곤 했다. 그러다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이제는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고 느껴 마음을 열어 세상을 다시 받아들이곤 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수시로 반복됐다, 잘난체하고, 그러다 아파하고, 곧 돌아서 후회하여 참회하며, 세상에 수순하면 기뻐지고, 그러다 또 잘난 체 하고. 나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생활들이었다. "나를 내세우니 세상이 내게 대적되고, 나를 숙이자 세상이 스승되어 나를 인도하네"

나의 아집과 독선과 편견과 이기등 울퉁불퉁한 모남을 바로 대중생활을 통하여 갈고 닦아 고르게 만드는 것이리라. 그래서 평생 수행자로서 살아가는데 흐트러짐이 없도록 기초를 다져주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입방후 하루가 채 되기도 전에 참회가 주어졌다.

치문반 스님 전체에게 내려진 것이다. 대중의 움직임에 개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역시 부처님께선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번 기회에 대중에 수순하는 법을 배우라고 참회를 내리셨나보다 하고, 이 참회를 내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열심히 절을 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힘들지 않았다. 물론 때때로 나를 내세워, 힘겨움을 스스로 짊어 지기도 했지만. 항상 '나를 내세움'을 경책하며, 대중에 수순하며 열심히 살아야겠다.



가셨습니다. 스님은 가셨습니다. 껍데기인 육신을 벗어버리고 가셨습니다.

조계산 자락 여기저기에 스님의 자취를 남겨 놓으신 채 미혹한 중생들에게 무상함을 몸소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스님의 모습을 뵈올 것이며 스님의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조금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시지 않고 떠나 버린 당신이 너무 서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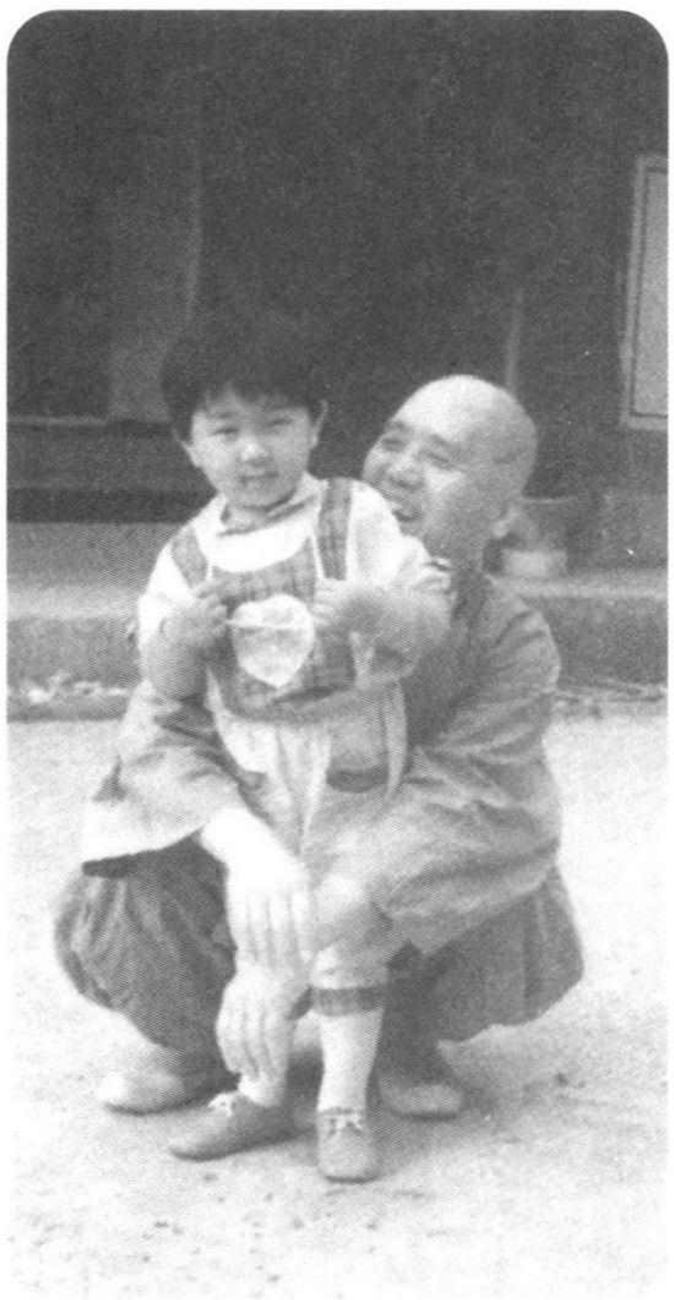
당신께선 그 동안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보셨기에 껍데기인 육신을 벗으셨겠지만 이 미혹한 중생은 아직도 미궁을 헤매고 있는지라 스님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아쉽습니다. 제가 그동안 스님을 모시면서 놀란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한가지가 제가 행자시절에 부지런히 읽고 외웠던 초발심자경문의 구절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구절들을 기억하시며 또 속내용들을 설명해 주실 때 스스로

찾아와서 법문을 듣고 돌아가는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인자한 모습이 때로는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때로는 천진난만한 동자승 같다고들 했습니다. 스님의 몸 전체에서 풍겨 나오는 법력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고 기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스님의 그 모습도 뵈올 수가 없습니다. 휑하니 뚫린 이 가슴을 무엇으로 메워야 할 지 답답합니다. 스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요. 찾아오신 어느 분에게나 항상 웃음띈 얼굴로 즐겁고 재미나게 법문 하시던 그 모습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찾아와서 법문을 듣고 돌아가는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인자한 모습이 때로는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때로는 천진난만한 동자승 같다고들 했습니다. 스님의 몸 전체에서 풍겨 나오는 법력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고 기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제방에 돌아다니면서 공부하시던 얘기를 들을



라치면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되돌아보며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꼈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는 때라 선원의 스님들이 배가 너무 고파 밤에 김치를 훔쳐먹곤 했고 그것을 안 원주스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김치에 소금을 가득 넣곤 하였다지요. 공부하시는 스님네와 소임을 맡으신 원주스님간의 밤마다 불꽃튀는 눈빛 경쟁이 대단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의 우리 절 집안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절 집안도 바깥 세상의 영향을 받은지라 먹고 생활하는 것이 훨씬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끔은 부끄러운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지대방에 널려 있는 음식들을 보면서, 혹시 시주자의 뜻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출가의 정신을 잊고 살지나 않

는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정도량의 승보종찰로서 지금까지 역대 국사님, 조사님들의 뜻을 잇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당신께서 평생 동안 계율을 지켜 모범을 보이신 부분도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신 스스로가 오계를 지어 노래를 부르고 테이프를 만들어 배포하면서까지 계율 지키기를 강조하셨고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생활을 웬만해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네 스님들이 막행잡식하는 것을 호되게 질타하셨고 깨친 자는 무애행을 해도 된다는 어줍잖은 일설에 일침 놓기를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 계율을 어기고서는 참다운 불법이 유지될 수 없고 우리 한국의 불교가 다시 중흥되기 위해서는 부처님법을 따라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누구에게나 인자한 모습을 잃지 않으셨고 자비로운 대중들을 감싸안으시며 대체로 모든 일 처리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수행자로서 엄격하시다 보니 저희들에게 야단을 치실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당신이 젊은 시절 수행하던 때와는 너무도 다르고 저희들 하는 일이 항상 서툴고 머트럽다 보니 경책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경책을 받을 때야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

지만 이제는 그 가르침 마저도 받을 수가 없으니 저에게 조금 더 가르침을 주시지 않고 가신 스님이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언젠가 스님은 저에게 이렇게 혼내신 적이 있으시지요, 제가 스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어느 보살님께 약을 부탁하였는데 그 보살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시고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무척 나무라셨고 재가 신도들에게 함부로 무슨 일을 시킨다거나 부탁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훈계하시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 모습도 뵈올 수가 없군요.

스님은 또한, 저에게 수행자의 생활자세인 무소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요. 보조국사님이 쓰신 계초심학인문의 "재색지화심어독사"(財色之火深於毒巳)를 인용하시면서 재물에 욕심을 내는 것은 도심소(道心疏)니 가진 것을 누구에게나 선뜻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하면 번뇌와 망상이 생기나니 어떻게 도를 깨칠 수가 있겠느냐며 수행자는 항상 무소유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가득 채울 수 있고 모든 것에 관대해 질 수 있으며 마음이 항상 너그럽고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욕심의 덩어리를 자꾸자꾸 도려내야 한다. 도려내면 낼수록 더욱 더 가득하게 채울 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풍요롭지 못한 자는 항상 빈곤을 느끼고 허덕거리며 제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종으로서 살다 간다고 하셨습니다. 아, 나는 주인인가.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의 덩어리는 얼마나 큰가. 오대양의 짠 바닷물을 다 마셔도 한량이 없음이라. 이제 스님은 가셨지만, 그 가르침만은 조계산에 가득히 남아 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뼛속 깊이 절절히 새겨 열심히 열심히 수행할 것입니다.

스님이시여, 하루빨리 이 사바세계에 다시 오셔서 무명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생들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 주소서.

당신이 젊은 시절 수행하던 때와는 너무도 다르고 저희들 하는 일이 항상 서툴고 머트럽다 보니 경책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경책을 받을 때야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가르침 마저도 받을 수가 없으니 저에게 조금 더 가르침을 주시지 않고 가신 스님이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도반 스님에게

무념/치문

그 뜨겁던 여름은 어디로 갔는가요?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서늘합니다. 싱그러움을 자랑하던 조계산도 어느덧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

제행무상이라더니 옛 스님들께서 삼라만상 모두가 법을 설하고 있다는 말씀을 자연의 미묘한 변화를 지켜보면서 그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봅니다.

그리운 도반스님

그간 정진 일여(一如)한지요

해제방학때 스님을 만난 뒤로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간경시나 공양시 또는 포행시에 해맑은 스님얼굴이 떠오르면 살짜기 서랍을 열고 만행 다니면서 일회용 카메라로 찍었던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나 산란할 때 또는, 즐거울 때 사진을 보고 있으면 가슴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고 편안해집니다.

스님!

치문반 생활도 벌써 중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처음 강원에 들어올 때만 해도 참으로 막막했는

데 이제는 슬슬 꾀도 나고 여유도 즐길만하게 됐습니다.

많은 대중스님들이 모여 사는지라 때로는 갖가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책에선가 수녀님과 스님이 나눈 대화 한 토막이 생각납니다. 수녀님이 얘기하기를 '하루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사랑' 인데 역설적이게도 사랑이 제일 부족한 곳이 수녀원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자 스님도 '맞습니다. 우리 승가도 자비도량이라 하는데 어떤 면에선 스님들에게 제일 먼저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자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스님네가 자칫하면 건조하고, 감정적으로 메말라져 다른 이에게 참견하기 싫어하고 충고 받기도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쟁점화 되었을 때 조금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모습들이 간혹 스님들한테서 묻어 나오곤 합니다.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님!

자신에게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게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수행자로서 늘 깨어 있는 정신과 하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장판 때가 묻을수록 여법한 수행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나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스님께서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치문에 보면 위산 대원선사 경책문이 있는데 그 첫구절에 夫業繫受身(부업계수신)은 未免形累(미면형루)라는 구절을 볼 때마다, '지금 이 몸을 받은 것도 업에 끄달려서 받았을텐데 금생에 나를 제도 못하면 다음 생엔 어찌되려나' 하고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다른 도리가 없겠지요 그저 한눈 안 팔고 열심히 수행하는 수밖엔.

스님!

가을바람이 부니 옆구리께가 허전합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픈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망상이겠죠?

쓸데없이 이말 저말 늘어놓았습니다.

스님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공양도 많이 드시고 한층 맑아진 눈으로 다시 만납시다. 내내 건강하시고 우리 금생에 꼭 성불합시다.

華嚴釋題 중에서

梅月堂 雪岑스님 撰
정묵/대교 譯

又復歎曰 奇哉 我今普見一切衆生 具有如來智慧德相 但以妄想執着 而不證得 此又將菩提場中所證所得低 盡情分付諸人了也 汝諸人現在菩提道場中人人頭載虛空 箇箇脚踏實地 而不成正覺者 何耶 妄想執着未除也 菩提大心未發也 迷則菩提爲妄想 悟則妄想爲菩提 梵語菩提 此飜曰覺 欲成正覺者 須發菩提心 故經云 菩提心者 猶如種子 能生一切諸佛法故 菩提心者 猶如大地 能持一切世間故 菩提心者 猶如淨水 能洗一切煩惱垢故 菩提心者 猶如大風 普於世間無所得故 菩提心者 猶如大車 普能運載
諸菩薩故 菩提心者 猶如大道 普令得入大智城故 菩提心者猶如舍宅 安隱一切諸衆生故 菩提心者 猶如園林 於中遊戲受法樂故 菩提心者 猶如慈父訓導一切諸菩薩故 菩提心者 猶如慈母 生長一切諸菩薩故 菩提心者 猶如蓮花 不染一切世間法故 菩提心者 猶如良藥 能治一切煩惱病故 菩提心者 如如意珠 周給一切諸貧乏故 菩提心者 如如意樹 能雨一切莊嚴具故 菩提心者 如大施會 能滿一切衆生心故 菩提心者 如佛支提 一切世間應供養故 善哉 菩提心 乃有如是之功德也 旣發菩提心 當修菩薩行 行若不修 心性虛發 某豈不見 善財童子 每參知識必曰我已先發阿 多羅三 三菩提心 而我未知 云何學菩薩行 修菩薩道 我聞聖者善能誘誨願爲我設 此乃善財發心修行之樣者也 由是而知 雖有多聞 若不修行 與不聞等如人說食 終不能

또 찬탄하여 "기이하구나! 내가 지금 살펴보니 일체 중생이 여래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는데, 다만 망령된 생각과 집착을 하는 까닭에 증득하지 못할뿐이구나."하고 말씀하셨다. 이에 또 보리 도량 중에서 증득하신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부(分付)하였다. 너의

모든 사람이 지금 보리 도량에서 사람과 사람이 모두 허공을 이고 개개인이 참다운 땅을 밟고 있으니 정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망상과 집착을 제거하지 못하고, 보리의 큰 마음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혹하면 보리가 망상이 되고, 깨달으면 망상이 보리가 되는 것이다. 범어인 보리(菩提)를 이곳 말로 번역하면 깨달음(覺)이니, 정각을 이루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보리심을 발하여야 한다. 그런 까닭에 경에 이르시길, 보리심이라는 것은 마치 종자와 같으니, 능히 모든 불법을 낳는 까닭이요. 보리심이라는 것은 마치 대지와 같으니, 능히 모든 세간을 지지하는 까닭이요. 보리심이라는 것은 마치 깨끗한 물과 같으니, 능히 모든 더러움을 씻어 내는 까닭이요. 보리심이라는 것은 마치 큰바람과 같으니, 능히 널리 세간에 장애 되는 것이 없는 까닭이요. 보리심이라는 것은 마치 큰 수레와 같으니, 널리 보살들을 실어 나르는 까닭이요. 보리심이라는 것은 큰길과 같으니 널리 대지혜의 성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까닭이요. 보리심이라는 것은 마치 집과 같으니, 능히 일체의 모든 중생을 편안하게 하는 까닭이요. 보리심이라는 것은 마치 동산의 숲과 같으니, 그 안에서 즐기며 법락을 받는 까닭이요. 보리심이라는 것은 자애로운 아비와 같으니, 일체의 모든 보살을 가르쳐 인도하는 까닭이요. 보리심이라는 것은 마치 자애로운 어미와 같으니, 일체의 모든 보살을 낳아 기르는 까닭이요. 보리심이라는 것은 마치 연꽃과 같으니, 일체의 세간에 물들지 않는 까닭이요. 보리심이라는 것은 마치 좋은 약과 같으니, 일체의 번뇌의 병을 다스리는 까닭이요. 보리심이라는 것은 마치 여의주와 같으니, 두루 일체의 모든 가난한 이들을 넉넉히 해주는 까닭이요. 보리심이라는 것은 마치 여의수(如意樹)와 같으니, 모든 것을 장엄하는 도구를 내리는 까닭이요. 보리심이라는 것은 마치 크게 베푸는 모임과 같으니, 일체 중생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까닭이요. 보리심이라는 것은 마치 불지제(佛支提=불탑)와 같으니, 일체 세간이 마땅히 공양하는 까닭이라 하니, 훌륭하도다! 보리심이여, 이와 같은 공덕이 있음이로다.

이미 보리심을 발하였으면 마땅히 보리행을 닦을 것이니, 행을 닦지 아니하면 빗나가게 될 것이다. 아무개는 어찌 보지 못하였나? 선재 동자가 매번 선지식을 찾아 뵐 때마다 반드시 "제가 이미 앞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발했으나 아직 모르니 어떻게 보리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습니까? 제가 들으니 성자께서는 훌륭히 깨우쳐 가르쳐 주신다 하니, 원컨대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말하다. 이것이 곧 선재 동자가 보리심을 발하여 수행하는 본보기이다. 이로 말미암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많이 알아도 수행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으니, 마치 사람이 먹는 것을 이야기만하면 끝내 배는 부르지 않는 것과 같다.

大乘六情懺悔

釋元曉 撰
응진/치문 譯

若依法界始遊行者於四威儀無一唐遊念諸佛不思議德常思實相 銷業障普爲六道無邊衆生歸命十方無量諸佛

만약 법계에 의지하여 수행하려 하는 자는 행주 좌와 네 가지 위의에 한가지라도 헛되이 노님이 없어야 하며, 모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생각하고 항상 실상을 사유하여 업장을 녹이고 널리 육도의 끝없는 중생을 위하여 시방의 한량 없는 모든 부처님에게 귀의해야 한다.

諸佛不異而亦非一一卽一切一切卽一雖所住而無不住雖無所爲而無不爲一一相好一一毛孔遍無邊界盡未來際無障無 無有差別敎化衆生無有休息所以者何十方三世一塵一念生死涅槃無二無別大悲般若不取不捨以得不共法相應故

모든 부처님들은 다르지 않으나 또한 같지도 않으며 한 부처님이 곧 일체의 부처님이고 일체의 부처님이 곧 한 부처님이시다. 비록 머무는 곳 없으나 머물지 않음도 없고 비록 하는 것 없으나 하지 못함도 없으시다. 낱낱의 모습과 털구멍이 끝없는 법계에 가득하시고 미래가 다하도록 장애가 없고 차별도 없으며 중생을 교화함이 쉼이 없으시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시방삼세에 망념과 일념 생사와 열반이 두 모습으로 구별이 없으며 대자 대비한 반야로 취하거나 버림도 없음이 불공법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今於此處蓮花藏界盧舍那佛坐蓮花臺放邊

지금 이곳 연화장세계에 노사나 부처님이 연화대에 앉으시어 끝없는 빛을 밝히시고 한량없는 중생을 모으시고 굴릴 것 없는 대승

光集無量衆生轉無所轉大乘法輪菩薩大衆遍滿虛空受無所受大乘法樂*

의 법륜을 굴리시니 보살대중이 허공에 두루 가득하여 받을 것 없는 대승법락을 누리신다.

* 大乘法樂 : 여기에서의 대승은 소승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의 의미가 아니며 일심의 위대한 작용의 측면에서 사용된 말이다. 법락이란 글자 그대로 진리 그 자체를 누리는 즐거움을 의미한다

而今我等同在於此一實三寶*無過之處不見不聞如聾如盲無有佛性何爲如是無明顚倒妄作外塵執我我所造種種業自以覆弊不得見聞猶如餓鬼臨河見火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하나의 진실한 마음이며 (그 마음의 세가지 측면인) 삼보로 허물이 없는 곳인 이곳에 함께 있으나 보고 듣지 못함이 마치 귀머거리 같고 봉사 같으니 불성이 없음인가? 어째서 이러한가? 무명으로 전도되어 망령되이 외부 경계를 만들고,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여 갖가지 업을 지으니 스스로 덮이고 가려져 보고 듣지 못함이 마치 아귀가 강가에 닿아 강물을 불로 보는 것과 같다.

* 一實三寶 : 일은 절대 실은 진실의 의미로 一實이라함은 진여실상의 理體를 가리킨다 곧 일실이란 만유의 근본인 마음이며 마음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내면 불 법 승의 삼보가 되는 것이다.

故今佛前深生懺愧發菩提心誠心懺悔我及衆生無始以來無明所醉作罪無量五逆十惡無所不造自作教他見作隨喜如是衆罪不可稱數諸佛賢聖之所證知已作之罪深生懺悔所未作者更不敢作

그러므로 지금 부처님 전에 부끄러운 마음을 내고 보리심을 발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라.

나와 중생들이 시작 없는 이래로 무명에 취하여 한량없는 죄를 짓고 다섯 가지 무거운 죄와 열 가지 악한 죄도 짓지 않은바 없으며 스스로 짓고 남에게 시키고 남이 죄 짓는 것을 보고 좋아했으니, 이 같은 많은 죄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모든 부처님과 성현들이 아시니 이미 지은 죄는 깊이 부끄러운 마음을 내고 아직 짓지 않은 죄는 다시는 짓지 말지어다.

此諸罪實無所有衆緣和合假名爲業卽緣無

이 모든 죄는 실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며 많은 인연이 화합된 것이 업이라 불릴뿐이니 인연에 (卽)맞닿아도 업은 없으며 인연을

業離緣亦無非內非外不在中間過去已滅 未來未生現在無住故無所作*以其無住故亦無生

(離) 여의어도 또한 없다. (업은 짓는 자의)안과밖에도 없으며 중간에도 없고 (시간적으로는)과거는 이미 멸하였고 미래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 하였으며 현재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짓는 것이 없어 머무르지도 않으니 또한 발생함도 없는 것이다.

* 원문에는 고소작(故所作)의 세자만 있다. 이종찬교수의 견해에 의거 탈자가 있는 것이라 가정하여 무자를 삽입하였다.

先有非生先無誰生若言本無及與今有二義和合名爲生者當本無時卽無今有當今有時非有本無先後不及有無不合二義無合何處有生合義旣壞散亦不成不合不散非有非無無時無有對何爲無有時無無待誰爲有先後有無皆不得成

애초에 있었다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애초에 없었다면 어떻게 발생하겠는가? 만약 본래 없음(本無)과 지금 있음(今有)의 두 가지 의미가 서로 화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한다면 (本無)본래 없을 때엔 (今有)지금 있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으며 지금 있을 때엔 본래 없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으니 앞의 본래 없음과 뒤의 지금 있음이 함께 하지 못하고 있음과 없음이 화합하지 못하여 두 가지 의미가 화합될 수 없으니 어느 곳에 발생한다는 것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본래 없음과 지금 있음의 두 가지 의미가 화합하여도 이루어지지 않고 본래 없음과 지금 있음이 따로 하여도 또한 성립할 수 없으니 화합한 것도 아니며 따로 함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다. 없는 때엔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무엇을 상대적으로 없다 하겠는가? 있을 때엔 없다고 할수 없으니 무엇을 의지하여 있다 하겠는가? (先後有無)앞뒤 유무가 모두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當知業性本來無生從本以來不得有生當於何處得有無生有生無生俱不可得言不可得亦不可得業性如是諸佛亦爾

마땅히 알라 업의 성품은 본래(실체로서) 발생함이 없다. 본래부터 발생한다는 것이 성립할 수 없으니 어느 곳에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립하겠는가?

발생함이 있다 발생함이 없다는 것이 모두 성립할 수 없으며 성립될 수 없다는 말도 또한 성립할 수 없다. 업의 성품은 이와 같으며 모든 부처님 또한 이와 같다.

짐을 벗다

"이 세상에 재산 많은 사람들
어리석어 베풀줄 모르고 그저 거두어
쌓아둘 줄만 아니 끝없는 탐욕만 날로 늘어만 가네.
욕심 많은 임금은 폭력을 휘둘러
땅덩이를 정복하고 바다까지 차지하니
바다 이쪽에서 만족할 줄 모르고
바다 저쪽까지 차지하려 허덕인다.
세상의 임금과 그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떠나기 전에 죽음이 온다.
원래 탐욕이란 만족이 없는 것이거늘
목숨을 마친 뒤엔 거지 신세로 가는 구나.
가족들이 머리풀고 슬피울면서
우리 식구 살려달라 울부짖지만
삼베에 꽁꽁 묶인 채 밖으로 들려나와
쌓아놓은 장작 위에 불태워진다.
많은 재물버리고 옷 한 벌로 태워지나니
살아서 웃고 울던 일가 친척들
장대에 찔리면서 불타는 사람에게
누구 하나 힘이 되어 돕지 못하네.
쌓은 재물은 상속자가 가져가고
자신은 업을 따라 혼자 가나니
자식이나 아내, 재물이나 권력도
죽은 사람에겐 무엇 하나 따라가지 않는다.
재물로도 죽음을 막지 못하고
황금도 늙어감을 막지 못하니
목숨은 잠깐이요, 세상은 덧없는 것이라고
진리에 눈뜬 이는 항상 말하였다네.
어진 이나 어리석은 이, 모두 죽음을 만나지만
어리석은 이는 두려움에 떨며 놀라나
어진 이는 차분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지혜는 이승에서 열반에 이르게 하나니
재물인들 지혜에 비교할 수 있을까?
열반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
재물에 눈이 어두워 악업만을 쌓고 있다.
모든 탐욕은 타오르는 불길이요
황금은 무서운 칼날임을 알아야 하리.
나고 죽음에 따르는 고통과
당해야 할 지옥의 괴로움을 보아야 하리.
도처에 깔려 있는 재앙을 보고
스스로 내 자신을 경책(警責)하여
탐욕, 분노, 사견(邪見), 윤회의 굴레를 버리고
번뇌를 끊어 승리의 길에 들어섰노라.
나는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성실과 자비를 성취하였나니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생사의 굴레를 넘어 자유의 기쁨을 얻었다네."

Rattapala〈Thear - Gatha, p-302〉

편집후기

해청당 11호가 산고의 마지막 고통을 토해 내고 있는 지금 가을비가 내립니다.

어쩌면 철을 넘기고 하얀 겨울호로 태어날뻔 했던 11호가 안도의 한숨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듯 합니다.

강원의 경반스님들이 쓰던 법성료가 새로운 강당의 보금자리로 태어나기 위해 해체되었고, 효봉스님제, 보조사상연구원의 세미나, 학인대회 참석 등 행사도 많았고 울력도 많았던 이번 산철, 해청당은 기지개를 펼 기회를 찾지 못해 저희들은 벙어리 냉가슴이 되었습니다.

한달 반밖에 안되는 산철기간이 해청당의 얼굴에 암흑을 드리우고 있을 때, 의무감에 넌지시 대중스님네께 원고에 대한 부담을 안겨 드렸더니, 고맙게도 애정으로 응해 주셨고, 여기에 대교반 스님의 애정이 보태지면서 가을호는 얼굴을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대중스님네께 고맙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부끄러움을 덜어보려고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만, 역시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제 해청당 11호가 부끄러워 붉거진 얼굴을 가을비에 식히면서, 이런 다짐을 합니다.

'다음 겨울호는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말거야.'

대중스님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후원해 주신 분들

고경, 대경, 일선, 현장, 해만, 혜도, 종운, 현전, 범종, 일귀, 황운, 지운, 지우, 승국, 보적, 대원, 덕조스님, 덕천사(조태), 이희림, 김천진불, 보현화, 심준남(불모심), 원각심, 자행심, 정각행, 정행심, 정정희, 심분남, 박보현화, 자행심, 김영미, 김수현, 노재순, 이예선, 김공흠, 일광민, 진주후원회, 창원후원회, 김혜옥, 김갑숙, 류인석, 김무숙, 구룡사, 황소현, 김종상, 김원정화, 박영남, 임철훈, 오지영, 노혜견, 이경희, 김도훈, 노선랑, 이준수, 이후관, 이임덕, 김자비, 허명옥, 김영희, 이영신, 송필진, 김현미, 김혜란, 이원각심, 김명옥, 오덕희, 정원명화, 도서출판보림, 송광사 종무소

해청당 후원자를 모십니다

'해청당'은 기획에서 사진, 삽화, 편집, 디자인까지 오로지 학인의 손으로 하고 인쇄만 외부에 맡기고 있지만 한번 발행하는데 이백여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에만 의존하고 있는 학인이 부담하기에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혼탁한 시대에 한점 수행의 향기를 전하고자 맨손으로 시작한 '해청당'이 깊이 뿌리내리고 알찬 깨달음의 열매를 맺어 모든 이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드릴 수 있드록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 온라인 번호로 입금하시고 '해청당' 편집실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해청당'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 502864 - 0205429 - 17
예금주 : 서화교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해청당 편집실
우. 541-930 ☎ (0661) 755-5300, 5302

작은 정성 큰 기쁨!

가을비 내린 뒤로 기온이 뚝 떨어져 옷깃을 여미게 할만큼 쌀쌀해 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의 걱정거리가 많은 계절이지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소년소녀 가장들입니다. 뜻하지 않게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은 우리들 주변의 많은 소년소녀 가장들은 부모님을 잃은 외로움과 추위 그리고 생계수단의 막막함으로 인해 그늘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린 가장들이 봄 햇살 같은 미소를 잃지 않도록,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도와주신다면 어린 가장들이 먼 훗날 이 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 한 그루의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많은 사랑과 애정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남에게 무언가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분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살아가면서 문득 삶이 시들하거나 메마르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지요. 그런 날에는 사랑에 목말라 하고 외로워하는 우리의 어린 가장들을 위해서 베풂을 통한 사랑의 길을 한 번 떠나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풍성한 가을 들판처럼 넉넉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보내주시는 소중한 보시금은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온 가내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가득하시길 빕니다.

◀우체국 : 501676 - 0022504

◀수취인 : 도선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송광사

◀전화 : 0661-755-5302

영산전 약사전은 두어깨를 가누대고
의좋은 저 마음을 누가 또한 따르련고
아마도 시름 줍는 마음 알 이 없어 하노라

* 인암스님의 송광사 순례시조집 중에서

靈山展 보물 제303호이며 1637년에 지었다. 약사전과 나란히 있다. 약사전 보다는 규모가 크나 다른 법당에 비하면 아담하다. 부처님의 생애를 여덟 폭에 그렸다. 八相圖인데 그 그림을 벽면에 가득히 걸었다.